황혼의 색소폰

지난 주에 '필라델피아 색소폰 동호회'의 정기 발표회에 다녀왔다. 그 클럽은 창립 6 주년으로 매년 한번씩 정기 연주회를 갖는다고 한다. 내가 속해 있는 '체리힐 색소폰 클럽'은 이제 겨우 일년이니 새까만 후배인 셈인데가 실력도 여러가지로 부족하여 선망의 대상이다. 그런데 우리 클럽의 리더가 그 연주회의 찬조출연을 덜커덩 승락하는 바람에 본의아니게 우리 멤버들이 한곡을 불게 됐다. 연주는 대체로 무난하였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클럽에 색소폰을 배운지 2 년밖에 되지 않는 72 세의 노인부부가 계신다는 것이다. 그 노부부가 프로그램의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 주었다. 70 세가 넘은 황혼의 노부부 !!. 나도 십여년이 지나면 저 나이가 될텐데 우리 부부는 과연 그 때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나는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지금 어떤 삶을 사는지 알지 못한다. 그들이 행복한지, 불행한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적어도 저 부부가 색소폰을 함께 부는 시간만큼은 행복할 것이라 확신한다. 또 배운지 6 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는 여자분도 합주는 물론, 독주까지 훌륭히 하는 것이다. 참여한 축하객들도 부모, 형제들, 자식들,친구들, 심지어 손주들까지 대부분이 온 가족이어서 그야말로 집안 잔치였던 셈이다. 연주를 잘하고 못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그들은 음악을 통해, 색소폰을 통해 인생을 즐기고 있다는 느낌을 공감할 수 있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프린스턴 대학의 다니엘 카네만 교수는 <일상의 즐거움>을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했다. 행복할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의 문명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프로이드는 이를 <문명의 불만>으로 압축해서 설명한다.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억압하는 것을 기초로 생성된 문명은 그 본질에 있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게 없다는 결론이다. 카네만 교수는 "행복하고 싶다면 행복을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게 정의할 수 있어야한다. 이를 전문용어로 '조작적 정의'라고 한다. 행복이란 '하루중 기분 좋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 모든 저작권은 윌리칼럼 저자인 이위식에게 있으므로 저자의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돈과 행복의 관계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일정정도의 수입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단 그 한도를 넘어서면 돈과 행복은 별 상관이 없다. 돈 이외에도 행복을 결정하는 외부적 요인으로는 종교, 결혼, 직장, 사회 민주화 등 다양하다. 하지만 이들은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들 중에 10%에 불과하다. 켈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소냐 류보머스키는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의 50%는 '유전적인 성격'이다. 즉 60%의 내적 외적 조건들을 정리해보면 우선 유전적으로 성격이 외향적이어야 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일정하고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하고, 결혼을 해야 하고, 종교를 가져야 한다. 또한 건강해야 하고 민주적인 국가에서 살아야 한다. 그러나 나머지 40%는 무엇인가? 사는게 재미있어야 한다. 즐겁고 유쾌하게 사는 <능력>이 40%를 차지한다. 행복의 요건중 50%의 유전적 요인은 어차피 팔자(?)고 운명이다. 그러나 나머지 40%는 재미있고 유쾌하게 살려는 <노력>만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명지대 김정운교수는 '나는 놈 위에 노는 놈, 즉 재미있게 사는 놈'이라는 명제를 제시했다. 앞으로의 시대는 열심히 일하는 '새벽형 인간'의 시대가 아니라 창조적이고 재미있는 삶을 추구하는 '노는 놈(?)'의 시대라는 것이다. 그래서 산업화 시대는 '걷는 놈위에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었다면, 그들은 성공한 삶을 위해 즉 좋은 학벌, 좋은 직장, 안정된 수익을 위해 죽도록 앞만 보고 달렸다. 하지만 이제는 삶이 재미있지 않으면 부와 명예도 말짱 도루묵이라는 것이다. 당신의 현재 삶은 재미있는가. 아니면 '참아야 하느니라, 또 참아야 하느니라'고 수없이 독백하는 수도승의 가시밭 길인가. 요즈음 사람들은 죽을 때 '껄, 껄, 껄'하고 죽는다고 한다. 첫번째 '껄"은 '보다 베풀고 살껄'이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죽은후에 정리해보면 천만원은 있다고 한다. 돈,돈,돈. 해봐야 재미있게 사는데 큰돈 드는 것도 아니고, 평생 죽도록 일해 자식들에게 물려줘봐야 고마운줄도 모른다. 베품도 결국은 즐거움이다. 두번째 '껄'은 '보다 용서하며 살껄'이다. 원수지고 살아봐야 나만 상처입고 아까운 세월만 낭비한 셈이다. 용서는 원수같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재미있게 살기 위한 내 자신을 위한 것임을 잊지말아야 한다. 마지막 '껄'은 '보다 재미있게 살 껄'이란다. 재미있게 살기 위해서는

* 모든 저작권은 윌리칼럼 저자인 이위식에게 있으므로 저자의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재미있는 <꺼리>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야 한다. 이민의 삶에 그 대상은 부부가 아닐까. 지금 당장 이혼할게 아닌다음에야 황혼의 나이에 서로에게 구박하면 무엇하겠는가. 서로 이쁘다고 말해주고 만져주고 먹여주는게 무에 그리 어려운가. 흔한 말로 돈드는 일도 아닌데.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클럽에 가입하거나 재미있게 사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면 된다. 친구따라 강남간다고 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부부도 황혼의 노부부처럼 재미있게 늙어가는 삶을 연습중이다. 색소폰 클럽, 기타클럽, 탁구클럽, 배드민턴 클럽, 성경공부 클럽에 가입한 이유다. 또 좀더 나이들어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미술클럽 (유화, 묵화, 동양화, 수채화, 초보자는 종목을 가리지 않는다), 산행클럽, 여행클럽, 골프클럽, 문학클럽 등에도 가입할 예정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수염도 기를 생각이다. 생각만 해도 즐겁다. 바쁘다. 바빠...

* 모든 저작권은 윌리칼럼 저자인 이위식에게 있으므로 저자의 서면 동의 없는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